

# 호남불교계, 이주노동자와 '동행' 나서

### '꿈을이루는 사람들'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체험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기업 연계 센터 개선

"우리 센터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팔사람을 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합니다."

호남지역 불자들의 이주민 끌어안기가 화제다. 불교계 이주민센터인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3월 30일 금요일에 희망나눔봉사단 30여 명과 함께 네팔 공동체센터 보수를 진행했다.

네팔 공동체센터는 직장을 이직하거나 마땅히 할 곳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해 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센터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꽃이여' 음악회 수익금으로 마련한 곳이다. 네팔 공동체센터는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주변 주택을 임대해 네팔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광주의 대표적 공단인 하남공단에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복지시설에 광주외국인복지센터가 유일하다. 센터에는 매일 3~4명의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네팔 근로자 20~30여 명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한다.

이주성 센터장은 "지역 사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기업체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금요일이어서 재직 중인 불자 김인수 거사의 도움을 받아 금요일이어서 희망나눔봉사단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센터 보수는 32년째 진행되는 행사다.

센터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비네(네팔) 씨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네팔사람들을 위해 많이 도와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특히 광주외국인복지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네팔사람들이 서로 이야기 하면서 한국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4월 28일 광산구 옥동경기장에서 이주여성과 노동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주민어울림마당 체육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3월 30일 이주노동자와 함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문화체험 행사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5개국 이주노동자 100여명이 동참해 전북 남원 춘향테마파크 일대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폭력예방과 임금을,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주민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공우주전문대를 방문해 별자리 관찰과 항공체험을 하고 축제의 장에서는 신 춘향전을 관람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인 완니 씨는 "한국 문화체험은 몇 번 가봤지만 이번 체험은 문화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관람이라 신선하고, 좀 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주노동자 한국문화체험(사진 왼쪽)과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기업연계 센터 개선 모습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기업연계 센터 개선 모습

당 체육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3월 30일 이주노동자와 함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문화체험 행사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5개국 이주노동자 100여명이 동참해 전북 남원 춘향테마파크 일대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를 위한 직장 내 폭력예방과 임금을,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주민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공우주전문대를 방문해 별자리 관찰과 항공체험을 하고 축제의 장에서는 신 춘향전을 관람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인 완니 씨는 "한국 문화체험은 몇 번 가봤지만 이번 체험은 문화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관람이라 신선하고, 좀 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권침해 예방과 이주민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등 이주민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공우주전문대를 방문해 별자리 관찰과 항공체험을 하고 축제의 장에서는 신 춘향전을 관람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인 완니 씨는 "한국 문화체험은 몇 번 가봤지만 이번 체험은 문화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관람이라 신선하고, 좀 더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 신흥사 4월부터 봉축 준비, 속초 일대 장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강원도 속초에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4월11일 오후 6시분 舊속초소방서 앞 전광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17일 동자승 수계식, 4월 19일 연등문화축제 등을 개최한다.

동자승 수계식은 불교유치원 어린이 7명이 삭발할 예정으로 이들은 부처님오신날까지 지역기관과 복지시설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연등문화축제에는 신흥사 합창단, 난타 등의 공연이 진행되며 엑스포광장에서 동명향광장까지 1시간 동안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오후 8시 30분에는 동명향에서 불꽃축제가 펼쳐진다. 5월 6일 오전 10시에는 신흥사 극락보전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린다.

신흥사는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도 연다. 4월 26일 오전 10시 속초경찰서 법당에서 속초 관내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기도법회가 열리며 5월 3일 오전 9시부터



지난해 열린 동자승들의 봉축기간 지역탐방모습.

는 노학동 종합운동장 앞에서 운전자에게 차량용 연꽃걸이 2000개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5월 3일에는 총 64경기가 펼쳐지는 '제 4회 설악산 신흥사배 축구대회'를 비롯해 '전통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어울림마당도 함께 진행된다.

신흥사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날을 축하하고 속초시민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봉축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는 노학동 종합운동장 앞에서 운전자에게 차량용 연꽃걸이 2000개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된다.

5월 3일에는 총 64경기가 펼쳐지는 '제 4회 설악산 신흥사배 축구대회'를 비롯해 '전통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어울림마당도 함께 진행된다.

신흥사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날을 축하하고 속초시민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봉축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지역경로당과 업무협약

선운사 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이 지역의 경로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로당의 활성화에 나섰다.

고창사회복지시설은 4월 2일 고창읍 상원아파트경로당 외 지역 11개소 경로당과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신규사업의 공동지원과 상호지원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관과 경로당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생활 실천과 취미·여가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공동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단절호흡,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되고 건전



경로당 업무협약 및 임원진 간담회 모습

## 지리산 화엄사 구층암 산신재 봉행

지리산 화엄사 구층암(주지 덕제)은 4월 2일 봉천산신사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기운의 울림"이란 주제로 산신대제를 봉행했다.

이번 산신재는 전국 각지에서 찾은 기도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패, 천수바라, 육법공양 등 불교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덕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리산은 성모할말산신이 상주하는 명산"이라며 "1년에 한번 삼월삼짇날 이뤄지는 산신과의 귀중한 만남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대처해 가는 힘을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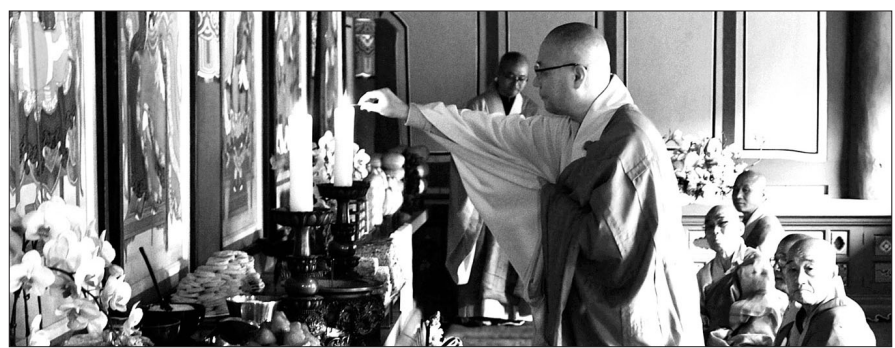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 한편 봉천산신재는 해마다 음력 삼월 초하루부터 삼짇날까지 진행된다. 100여년 전부터 화엄사 스님들이 봉천산신터에서 재를 지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선운사, 석전 스님 66주기 추모재



일제시대 조선불교 교정을 역임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한 석전 스님의 66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가 봉행됐다.

선운사(주지 법만)는 3월 29일 '영호당 정호 대종사 66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다례재'를 선운사 대웅보전과 조사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석전 스님의 행장소개, 추모입성, 참배 등이 진행됐다. 추모재에는 조계종 호계원장 일민 스님, 문중원로 재근, 혜산, 재덕 스님을 비롯한 석전문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석전 스님은 불교진흥과 교육,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추모하고 "스님의 업적을 선양하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석전 대종사의 사상과 근대문학에 끼친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사는 올해 석전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가칭'조선불교초대교정 석전 박한영 대종사 일생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박한영 스님으로도 알려진 영호당 석전 스님은 율(律)·화엄(華嚴)종주인 백과 공선 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과 교(敎)을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의 초대 교장과 1929년부터 1946년까지 20년 동안 조선불교 교정으로 한국불교를 영도했다.

1919년 기미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 임시정부 수립에 전북대표로 참여하고 대한각(유리각)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48년 전북 내장사에서 서수 79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신진작가 6명 배출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는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 신진작가 공모전 당선자에 6명의 신진작가를 선정했다.

공모전은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만화, 디자인, 공예, 의상, 건축 등 시각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개최돼 총 20명 여명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 청년작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선정된 신진작가는 엄기준(회화, 남, 30세, 조선대학교 졸업), 이세현(사진, 남, 30세, 동신대학교 졸업), 김경란(설치미술, 여, 29세, 호남대학교 졸업), 려은(회화, 여, 34세, 호남대학교 졸업), 노여운(회화, 남, 27세, 전남대학교 졸업), 이조흠(회화 및 영상, 남, 30세, 조선대학교 졸업)씨다.

무각사는 이들에게 로터스갤러리에서 6월부터 8월 중 개인별로 2주간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간 및 전시관련 일체의 비용을 제공하며, 100만원의 전시지원금이 제공된다.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의 길에 들어선 신진작가들에게 힘을 주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시작한 일이다. 앞으로도 청년작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이며 이들의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광주 지역 미술계에 큰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진작가 김경란 씨는 "작년에 로터스갤러리에서 진행되었던 신진작가 초대전 5번 가운데 4번의 개막식에 참가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 올해 공모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어 너무 기쁘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신작을 선보이고 싶다"고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6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7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충,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7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4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4월 중 매주 (일,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② 성명학 : 6개월과정(단 역학의 기초과정을 배우신 분께서는 3개월 완성) (매주 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4월 28일 (매주 월) 2시 반 ~ 4시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제9기 불교의식(서울 범음·범패)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3개월 과정**

팔공불교대학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기본 의식 (3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래,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연방, 구명시식.
범음·범패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39위 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
작 법	천수바라, 도량계, 사다라니 작법, 법고 막바라 (살풀이 가능함)
사 물	북, 태징, 목탁, 요령

◆ 모집대상 : 승려, 재가불자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시 : 2014년 4월 30일(수요일) 오후 3시

◆ 수 업 : 매주 (목,금) 오후 3시 ~ 5시까지

◆ 신청접수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번지 (구.도동44) 팔공IC 5거리 H·P 010-9361-5566

**무파사 팔공불교대학 학장 일관 합장**